

최고가격제 두 달...물가 막았지만 주유소는 '한계'

60일 간 5차 시행에도 국제유가 상승 압력 여전히 생활물가 방어엔 효과...지역 주유업계는 '비명'

정부가 중동발(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처음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두 달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최고가격이 고시되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주유소와 정유업체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관리원 '전국 지역별 영업주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남지역 영업 주유소는 81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5곳)보다 11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폐업과 개업이 반복되면서 238곳을 유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며 휘발유는 1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동결했다. 2·3·4차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와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민생 안정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체감은 다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기름값도 다시 오름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최고가격



제 시행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도심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당 2000원이 훌쩍 넘는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주유업계는 가격 통제가 길어질수록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국제 원유 도입단가는 계속 오르는 데 판매가격은 정부 상한선에 묶이면서 마진 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특히 자영 주

유소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가격 조정 시점마다 반복되는 선결제와 재고 확보 경쟁 등 부작용도 지적한다.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급 부담이 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고 확보 경쟁까지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모씨(47)는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는데 판매가격은 묶여 있으니 갈수록 남는 게 없다. 지금도 겨우 버티는 수준이다"며 "대형 주유소가 버티겠지만 지방 자영 주유소들은 인건비·전기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격 조정 얘기만 나오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재고 확보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소비자 물가 전 반으로 빠르게 번졌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상당 부분 억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4월 물가 상승률이 1.2%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물류·운송·외식·가공식품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 판

단이다. 실제 국제유가 급등 당시 운송비와 원재료 가격 인상 우려가 확산했지만 최고가격제가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흡수하면서 생활물가 급등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고가격제 장기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가격 통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왜곡과 영세 주유소 경영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역 주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현장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며 "지방 자영 주유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최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 건설 현장 방문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는 현장경연을 실시했다.

여수섬박람회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온 힘'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주 행사장 현장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 대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김현중 이사장이 최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는 현장경연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공사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공단 측은 여수시 중대재해예방팀과 합동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추락과 붕괴 등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집중 확인했다.

특히 행사장이 조성 중인 진모지구는 간척지 특성상 연약지반 구간이 많아 기설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안전난간 설치 여부, 추락방지 조치 등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김현중 이사장은 "내부통제는 단순한 부장부패 방지 차원을 넘어 행정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 안전지원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광주경총, 인공지능 시대 경영리더십 조명

15일 금요일포럼...권찬호 관장 초청 '집단지성과 협력'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경영리더십과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강연을 마련한다.

광주경총은 오는 1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권찬호 미래교육센터 관장(사진)을 초청, '집단지성과 협력 그리고 AI 시대의 경영리더십'을 주제로 제1720회 금요초찬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찬호 관장은 상명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교육학과 교환교수로 활동했다. 지난 2023년에는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협력의 원리', '집단지성의 원리', '집단지성의 이해', '정책결정과 당정협의', '민원행정 제도연구' 등이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집단지성의 다양성과 독립성, 분산화와 통합, 협력의 구조, 집단지성의 장단점, 혁신 추진 전략, 진성 리더십, AI 시대 경영리더십을 실제 성과로 전환하는 협력의 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조직 내 협업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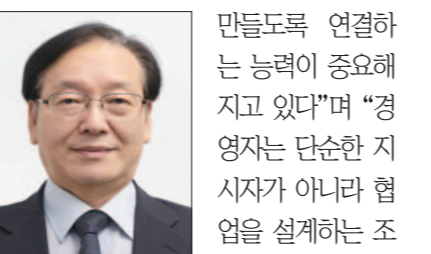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현사회는 사람과 AI가 함께 더 나은 판단과 실행을

만들도록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영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협업을 설계하는 조직이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경영리더십은 기계의 속도와 인간의 통찰을 결합해 집단지성을 실제 성과로 전환하는 협력의 설계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929개 회원사가 활동 중인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 지난 1990년 6월부터 매주 금요초찬포럼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최장수 민간 초찬포럼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9년 한국기록원 인증을 받았다.

송대용 기자 sdw0918@



2026 now naJU 나주방문의해 EON 60년 전통 홍어·한우 축제

홍어·한우 축제

22회 영산포

양귀비꽃 미식 대향연

2026 05.22(금) - 24(일) 3일간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양귀비꽃밭 일원

홍어(국내산35% / 수입산50%) 할인
한우30% 할인
상설 할인판매장 운영

초대가수: 류지광, 신승태, 박서진

주최·주관: 영산포 홍어·한우축제 추진위원회

한전 ESG 경영,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DJBIC 평가서 12년 연속 편입...글로벌 경쟁력 입증

한국전력공사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12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6 Dow Jones Best-in-Class (DJBIC) Asia Pacific' 지수에 국내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2년 연속 편입됐다고 12일 밝혔다.

DJBIC는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전

세계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글로벌 지수로 꼽힌다.

DJBIC는 매년 산업군별로 환경(E)·사회(S)·거버넌스(G) 전반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책임투자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Asia Pacific' 지수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 중 상위 20% 이내 기업만 편입될 수 있다.

올해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네이버 등 46개 기업이 이

름을 올렸으며, 공기업으로는 한전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전은 올해 평가에서 76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점 상승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재무 부담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ESG 관리체계 고도화와 지속가능경영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2500대 기업 중 상위 10%만 편입되는 'World' 지수 진입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윤리경영 강화, 안전·상생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통해 글로벌 ESG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